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의 실제

-탈북학생 교육지원 정책 및 지원제도 현황-

LESSON 1.

탈북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정책

LESSON 2.

탈북학생 및 가정에 대한 정착 지원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와 활용



1) 교육지원 정책 개요

(1) 추진 배경 및 경과

우리 정부는 탈북학생이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별도의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탈북학생이 각 분야의 통일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탈북학생 교육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17개 시도교육청과, 초·중등학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와 함께 탈북학생의 학교 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 단계별 교육 경로

탈북학생이 순조롭게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입국초기부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며, 교육부는 탈북학생의 학교 및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입국 초기 교육’ ⇒ ‘전환기 교육’ ⇒ ‘정착기 교육’ 순으로 교육경로를 단계별로 체계화하여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단계별 교육 내용

(가) 입국초기 단계의 교육

부모와 동반입국하거나 출생지가 북한인 경우 입국 후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12주간(3개월) 적응교육을 받습니다. 입국초기 교육기관에서는 탈북학생들이 각 정착지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탈북학생의 심리정서적 지원 및 학업보충·사회적응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초등학생의 경우

하나원 재원시 하나원 근처의 삼죽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및 삼죽초등학교에서 위탁 교육을 받고, 삼죽초등학교에서는 처음으로 학적을 만들고 정착지 초등학교로 전학 또는 중학교 취학 준비를 합니다.

삼죽초등학교에서는 학교 및 사회적응 지원을 위하여 일반학생들과의 통합교육과 탈북학생들만의 특별학급(유치원 1개, 초등학교 3개)에서의 맞춤형 교육이 병행됩니다.

특히, 전문심리상담사가 배치되어, 제3국 은신, 부모와의 격리, 탈북과정의 경험 등으로 인한 심리 정서적으로 불안한 탈북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학급에서는 한국어 구사능력이 낮은 제3국 출생(대부분 중국출생)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주당 약 15시간)을 비롯해 정착지학교 초기 학업 적응 지원을 위한 수학 등의 교과 교육이 실시됩니다.

○ 중·고등학생의 경우

하나원 내 하나둘학교에서 학업보충·사회적응 교육을 받습니다.

하나둘학교란?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대외명칭 하나원) 내에 설치된 예비학교
- 탈북청소년들의 정착기 학교 적응 준비, 취편입학 위한 준비 및 보충학습, 진로 진학 상담 등을 위해 정규학교의 초중등교사 12명(초등 1명, 중등 11명[국어 3명, 수학·영어 각 2명, 사회·과학·역사·중국어 각 1명이 현재 파견 근무중])

하나원 하나둘학교의 입국 초기교육을 마친 후에는 각자 배정받은 정착지 중·고등학교에 원활하게 취·편입학 할 수 있도록, 학력심의를 실시합니다.

○ 학부모 대상

자녀의 정착기 학교 취·전·편입학 및 적응을 지원을 위해 ‘하나원 탈북학부모 자녀 진로교육’ (2주에 한 번씩 2시간 동안 총 6회기 교육)을 실시하고,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남북한 학교교육 비교, 탈북학생 교육지원 정책 소개, 취학관련 행정 절차, 학부모 역할, 교사와의 소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학교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자녀교육 상담이 이뤄집니다.

(나) 전환기 단계의 교육

하나원 퇴소 후 정착기 학교로의 취·편입학 전 일종의 디딤돌교육을 희망하는 중고등학생의 경우 하나원 인근의 전환기 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로 취·편입학하여 학적을 만들고 6개월 또는 1년간 학업보충, 사회적응교육을 받고 정착지학교로 전·편입학 할 수 있습니다.

○ 전환기의 교육 기간

학생의 사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 가능하며, 한겨레중고등학교에서 졸업도 가능합니다.

○ 전환기 학교에서의 교육 지원

입국 초기교육기관(삼죽초등학교, 하나둘학교)과 마찬가지로 심리상담 지원,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협력학교(중·고등학교) 운영을 통해 정착지 학교 적응 준비 및 통합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한겨레고등학교에서의 교육

한겨레고등학교는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로 2019년 기준으로 바리스타, 조리, 피부미용,

네일아트, 제과제빵, 자동차정비, 3D프린터 등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 정착기 단계의 교육

입국초기 교육(하나원 퇴소) 후에는 각 지역의 일반학교에서의 탈북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멘토링’ 등 맞춤형 교육 및 진로교육 지원 등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탈북학생 다수가 재학중인 학교, 지역에서는 탈북학생 특별반, 정책연구학교가 운영되며, 학령기 초과, 부적응, 기숙사가 필요한 탈북학생의 경우 학력인정 대안학교에서 대안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는,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서 학업을 이어가며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취득하고, 상급학교(고등학교, 대학 등)에 진학하기도 합니다.

2) 교육부의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탈북학생을 지도하는 교사가 알고 있으면 좋은 교육부의 주요 정책사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맞춤형 멘토링, 잠재역량강화 프로그램, 성장 멘토링, 심리상담 지원, 진로직업캠프, 찾아가는 진로상담, 교원 연수, 우수사례 공모 등이 있습니다.

(1) 맞춤형 멘토링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맞춤형 멘토링’입니다. 교육부는 2009년을 기점으로 하여 탈북학생의 학업 지원, 그리고 심리정서 및 문화적응 지원 등 통합적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희망하는 모든 탈북학생을 대상으로 일대일 멘토링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가) 맞춤형 멘토링의 지원 내용

탈북학생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교사 등의 멘토링 활동으로 실질적인 맞춤형 교육을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학습지도(교재·문제집 지원, 예체능 교육 포함), 심리상담, 한국 문화체험, 직업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나) 맞춤형 멘토링의 운영

멘토교사는 멘토링 추진 시 탈북학생용 표준교재, 문해력 증진교재, 기초학력진단도구 등의 ‘탈북학생 맞춤형 교수학습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탈북학생 멘토링 매뉴얼, 진로·직업교육 매뉴얼 등의 교사용 매뉴얼을 활용하고, 대학생·선배·또래 멘토, 재능기부자 등 인적 자원과 하나센터,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멘토링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KEDI)의 지원

교사용 매뉴얼, 멘토링 지도 사례집, 각종 교수학습자료를 온·오프라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연수,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상담 전화(043-530-9481,2)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2) 잠재역량강화 프로그램(HOPE), 성장 멘토링(VASD)

(가) 잠재역량강화 프로그램(HOPE)

HOPE는 Harmony(소통), Optimum(맞춤형지원), Potential(잠재역량 계발), Education(교육)의 머릿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인문·과학·수학, 예술·체육, 직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가진 탈북학생(중학교 2학년 이상 고등학교 2학년 이하)을 선발하여 전문가와 1:1 결연을 통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합니다.

HOPE 프로그램은 일회성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다년간의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가자 중 활동이 우수한 학생과 멘토를 선발하여 장관 표창까지도 수여하고 있습니다.

(나) 성장 멘토링(VASD)

VASD는 Voluntary(자발적), Active(적극적), Sustainable(지속가능), Improvement(향상)의 머릿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터키어로는 후견인, 보호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탈북학생의 안정적 적응과 성장을 위하여 학교·사회생활 등 탈북학생의 생활영역 전반에 대한 2년 이상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멘토링을 지원하기 위해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맞춤형 멘토링이 같은 학교 교사·학생간 1년간 멘토링이 이뤄지는 것과 달리 멘토·멘티 학교급, 소속교가 달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서는 멘토링 참여 학생과 멘토 교사 선발, 연계·모니터링 실시 및 오리엔테이션, 캠프 등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심리상담 지원

입국초기 교육기관의 심리상담과 연계하여 지속적 상담이 필요한 정착기 학생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여 정착지 초기 적응을 지원하고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서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탈북학생이 거주하고 있는 정착지의 심리상담 전문가를 확보하여 20회기 내외의 심리상담 지원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하다면 가족상담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4) 진로·직업캠프, 찾아가는 진로상담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정책연구학교, 교육연구회, 지역 하나센터 등과 연계하여 탈북학생 희망을 고려한 시·도교육청별로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캠프를 실시합니다.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는 각 학교의 신청을 받아 진로상담이 필요한 탈북학생(중고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탈북학생 진로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 교원 연수

탈북학생 교육지원 담당교원의 탈북학생 이해 제고 및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청 및 중앙단위에서 교원연수를 실시하며 원격교육 연수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현황¹⁾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현황

! 북한이탈주민 국내정착 프로세스 !

보호요청 및 국내이송	• 보호요청 시 외교부, 관계부처에 상황보고 및 전파 • 해외공관 또는 주재국 임시보호시설 수용 • 신원확인 후 주재국과 입국교섭 및 국내입국 지원
----- 국내입국 -----	
합동조사	• 입국 후 국정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신문 • 조사종료 후 사회적응교육시설인 하나원으로 신병 이관
보호결정	•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 결정 • 보호결정 세대단위 결정
하나원 정착준비	• 사회적응교육(12주, 406시간) - 심리안정, 우리사회 이해 증진, 진로지도 상담, 기초 직업훈련 • 초기정착지원 : 가족관계 창설, 주거알선, 정착금·장려금 지원 등
----- 거주지 전입 -----	
거주지 보호 (5년)	• 사회적 안전망 편입(생계·의료급여 지급) • 취업지원 : 고용지원금, 무료 직업훈련, 자격인정 등 • 교육지원 : 특례 편입학 및 등록금 지원 • 보호담당관 : 거주지·취업·신변보호 담당관 제도 운영
민간 참여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한 종합서비스 제공 • 지역적응센터(전국 25곳) 지정·운영 • 정착도우미 제도 : 민간자원봉사자 연계 •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88명) - 종합상담 및 애로사항 해결 등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제공

정부에서는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추진방향을 정립하고 제시하면서 기존

1) 통일부(2018),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13~16쪽.

‘자립·자활’과 ‘사회통합’의 정책 방향을 유지하고 탈북민의 실생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체계마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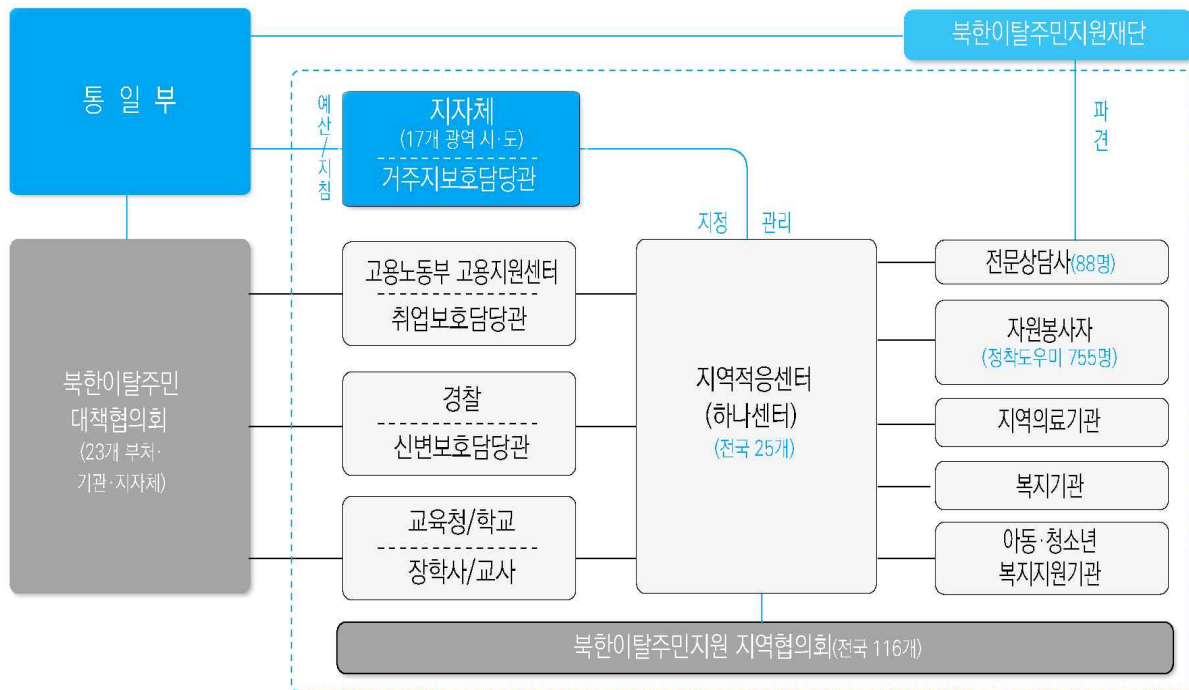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지원 정책은 정부-지자체-민간이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통해 탈북민 정책 협의·조정, 거주지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적응센터가 탈북민 특성과 지역 실정에 따른 정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는 지역 민간단체, 의료기관, 종교단체, 자원봉사자 등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및 지역적응센터와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란?

-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 하나센터, 지역 내 민간단체 및 지역 거주 탈북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차원의 정책협의체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



정착지원 체계는 크게 통일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적응센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관들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

정착지원 체계는 크게 통일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적응센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관들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가) 사회적응교육

하나원에서 12주간 기본교육을 받고 거주지 전입 후에는 하나센터에서 지역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정착금 지원

정부는 초기 정착을 위해 세대별로 기본금을 지급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추가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가산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 주거 지원

주거 안정을 위해, 영구·국민·다세대 임대주택을 알선하고 있으며, 주거지원금을 세대원의 수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라) 취업 지원

취업을 위해 직업 훈련비 및 훈련 수당을 지급하고, 직업훈련, 자격취득을 위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간 근속시 취업 장려금을 지급하고, 채용 기업주에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며, 자산형성제도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 사회보장 지원

생계급여, 의료보호, 연금 특례 등으로 사회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 교육, 상담 지원

특례편·입학, 학비 지원,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등을 통한 사후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 사업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의 초기 적응지원과 거주지 보호기간(5년) 등 정착의 전 지원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 화상영어교육

하나원에서 12주간 기본교육을 받고 거주지 전입 후에는 하나센터에서 지역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① 학습 내용과 주기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9세~24세)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원어민 강사를 포함한 문법, 발음, 회화 등 1:1 실시간 화상영어교육을 실시하며 주 2회, 1회마다 20분 이상씩 제공되고 있습니다.

② 신청 시기

매년 2월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멘토교사는 현재 지원하고 있는 탈북학생이 현재 화상영어교육지원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고, 연초에 신청하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챙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만 1년입니다.



[출처 : 남북하나재단 화상영어교육 홈페이지(<http://hana.sisaphone.com/>)]

나) 학습지 지원

① 대상

만3세~초등학생까지의 탈북아동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② 내용

주 1회 ‘방문 학습지’를 제공하여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③ 주의사항

교재제공 및 학습관리신청시기가 매년 2월임으로, 멘토교사는 현재 지원하고 있는 탈북학

생이 현재 학습지 지원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고, 연초에 신청하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챙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화상영어교육과 마찬가지로 지원기간은 만 1년입니다.

(다) 진로진학 지원

해마다 6월에는 ‘탈북청소년 대학진학 박람회’와, ‘진로상담주간’을 운영하여, 탈북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학입시 정보, 진로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예비대학을 통해 대학진학을 앞둔 탈북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라) 장학 지원 사업

매년 상하반기 장학생을 선발하여, 탈북 중고등학생에게는 100만원, 대학생에게는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지역·사회 기관, 기타 단체의 탈북학생 지원 프로그램

탈북학생을 비롯한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이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여러 기관이 존재합니다.

! 지역사회 기관, 기타 단체의 탈북학생 지원 프로그램 !

기관	탈북학생 지원 관련 주요 활동
하나센터	- 하나원으로부터 탈북성인, 청소년 신병인수 - 초기 정착 지원(전출입, 계좌 및 전화 개설, 지역 오리엔테이션) - 생활정보, 진로직업 정보 제공 - 탈북학생 학교 취·전·편입학 지원 - 다양한 적응 프로그램 실시(캠프, 상담 등)
복지관	- 탈북학생 공부방 운영 - 탈북학생 학부모 상담 - 자원봉사자(대학생 등)을 통한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 가족 지원 프로그램 실시 - 문화체험 활동
민간/대안교육시설	- 학교밖 탈북청소년 보육 - 검정고시 등 탈북학생의 진로진학 지도 및 진로 개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캠프, 진로학교) 실시
장학재단	- 탈북청소년 장학생 선발 및 지급 -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 각종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찰서	- 탈북가정 신변 보호 및 관리 예) 장기결석 발생 시 반드시 ‘신변보호담당관’ 협조 요청

탈북학생 지도 교사가 탈북학생에게 교육지원을 제공하는 교사, 전문가로서 학교 안팎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여 개별 학생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좋겠지만,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및 탈북학생 교육지원 정책 사업을 모두 챙길 수 없음으로 ‘남북하나재단 콜센터’ (1577-6635)에 문의하거나 소속교 지역 담당 전문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입니다.